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9월 6일

CUOMO 주지사, US 오픈 국립 테니스 센터 확장 및 개선을 위한 법안에 서명

본 확장은 더 많은 팬을 수용하고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며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금주에 뉴욕이 US 오픈을 자랑스럽게 개최함에 따라 Andrew M. Cuomo 지사는 Billie Jean King 국립 테니스 센터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안의 서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중요 인프라 수리를 가능하게 하며 주요 토너먼트에 더 많은 팬이 참석하고 1500여개의 건설 일자리 및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US 오픈의 현장으로서 Billie Jean King 국립 테니스 센터는 매년 수 천명의 팬들을 뉴욕으로 불러모아 우리 관광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촉발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연례 행사에서 테니스계의 최고 선수들을 선보이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본인은 US 오픈 같은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해 이 시설이 가능한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법안은 이 스포츠 종합단지의 확장 및 개선을 허용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해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itiField로부터 Yankee 스타디엄 및 Billie Jean King 국립 테니스 센터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는 스포츠와 오락을 위해 미국 최고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서명으로 전체 단지의 경계를 약 1 에이커 확장하고 1.56 에이커의 토지를 공공 레크레이션용으로 뉴욕주 공원부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선 계획에는 새 열의 테니스코트 신설, 관중 안전 및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펜스가 쳐지고 조경된 경계 지역의 추가 및 그랜드스탠드 스타디엄을 위한 새로운 입지가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인프라가 수리 및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US 오픈 토너먼트 동안에 하루 최대 10,000명의 팬을 추가로 수용하기 위해 공공 광장 및 산책길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 스포츠 단지의 확장은 10년 기간 동안에 Queens 주민들을 위해 약 800개의 건설 일자리와 추가로 776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상원 공동리더인 Dean G. Skel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 법안의 승인으로 USTA의 국립 테니스 센터의 역사적 확장을 위한 길이 닦이고 뉴욕시 지역 안팎의 경제 성장을 위한 새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확장으로 뉴욕은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의 이

최고 테니스 토너먼트를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세계 최고의 남녀 테니스를 바로 자신의 뒷마당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 Jeffrion L. Aub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S 오픈은 Queens의 최고 스포츠 행사로서 그 때는 세계의 눈이 우리를 향합니다. 이 확장은 오늘의 테니스 팬과 미래의 테니스 팬 모두를 위해 세계 정상급 테니스의 흥분과 전통을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 주에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팬과 경기자 모두를 위해 테니스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US 오픈 및 국립 테니스 센터의 경제적 영향력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 모두 입증된 수익 창출자이고 뉴욕시 경제에 혜택을 끼칩니다."

"USTA는 19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뉴욕에서의 풍부한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USTA의 이사회 의장 겸 회장인 Dave Haggerty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연례 스포츠 행사로서 US 오픈은 본거지인 뉴욕 시와 주에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본 법안으로 인해 오랜 전통이 지속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Billie Jean King 국립 테니스 센터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 테니스 시설입니다. Queens의 Flushing Meadows-Corona Park의 뉴욕시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있는 이 센터는 시를 대신하여 미국테니스협회(USTA)가 운영합니다. 이 단지는 전세계 최고의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US 오픈 테니스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2010년에 US 오픈은 뉴욕시를 위한 긍정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7억 5600만 달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1년의 4억 200만 달러와 1991년의 1억 45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토너먼트는 또한 매년 6,000개의 계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는 뉴욕시 직원의 85%이고 Queens 직원의 41%입니다. 이 일자리들은 직원 보수로 약 4000만 달러를 창출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